

혼성학급 여중생의 체육학습 무기력 원인 탐색*

권재현** · 유정애*** (중앙대학교)

국문요약

그 동안 정부와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육정책 수립과 학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의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여전히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 활동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공학 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습무기력을 경험한 여중생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체육학습무기력의 다양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재 남녀공학교인 A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학습무기력을 경험한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비참여 관찰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을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혼성 체육 수업에서 발생하는 여학생의 학습무기력은 4가지 원인(개인 원인, 또래학생 원인, 체육교사 원인, 환경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여중생의 개인 원인은 낮은 체력수준으로 인한 위축감과 내적 갈등의 연속으로 나타났고, 또래학생 원인은 또래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집단 문화, 또래 여학생들의 비난과 야유, 또래 남학생들의 참여 독점 행태로 도출되었다. 또한 체육교사의 원인은 차별적인 언행, 강압적인 체육수업 분위기, 체육교사의 일관성이 없는 판정으로 도출되었고, 환경 원인은 온도차이로 인한 참여의욕 저하와 낙후된 체육학습 공간이 학습무기력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중생, 학습 무기력, 중학교 체육, 혼성 체육 수업, 또래 학생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학생 체육활동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교육부의 학교체육활성화추진 기본계획(2020)에 따르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라는 세부과제는 학교체육내실화의 실행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 및 추진되어 왔다. 이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의 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를 근거로, 여학생의 신체능력을 고려한 종목을 여학생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며, 여학생의 선호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 이 글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 제1저자, 석사졸업, jaehyunkwon@kako.com

*** 교신저자, 교수, jayou@cau.ac.kr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교내대회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학생의 학교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도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기존의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여학생 체육활동 실태 분석 및 인식(김경숙, 김종호, 안혜임, 2016; 황의룡, 황철상, 2013), 여학생의 체육수업소외(이창섭, 황성하, 여정권, 2011), 여학생 체육활동 기피요인 및 기피유형(김미영, 임영무, 2014; 양갑렬, 2003;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 2013),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김성진, 2017; 김원정, 홍애령, 2017; 김택천, 2016; 엄우섭, 한은상, 이정택, 차민철, 2015; 이강순, 2015; 진연경, 이현석, 2016; 홍연중, 이옥선, 2017)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연구 부문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개선 또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 적용 등이다. 이처럼 정부와 학계의 다차원적인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 여학생의 체육활동은 과거보다는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결정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창섭 등, 2013). 학계에서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결정을 긍정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여학생 체육활동 연구의 또 다른 축으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저해 또는 기피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왔다(김미영, 임영무, 2014; 양갑렬, 2003; 엄우섭 등, 2015; 이창섭 등, 2013). 이 중에서 양갑렬(2003)과 엄우섭 등(2015)은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김미영과 임영무(2014)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창섭 등(2013)의 연구대상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체육활동 저해 또는 기피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체육활동을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요인은 인지심리적, 신체적, 물리환경적, 또는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김미영과 임영무(2014)에 따르면, 남녀공학 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생이 단성학교 재학 중인 여중생보다 체육활동의 기피 요인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 내용 요인과 날씨 요인에서 남녀 공학 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생의 기피 요인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남녀공학 중학교는 여자 중학교 보다 수업내용의 조직 측면에서 여학생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외모에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는 혼성반 여중생들은 날씨로 인한 용모 변화를 동일한 학습공간의 이성(異性)에게 노출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학습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무기력 현상에 관심을 두어 왔다. 학습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은 거듭된 실패를 경험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된다(김은미, 김민, 2017; 신기명, 1992). 학습무기력을 경험한 학습자들은 대체로 본인의 수행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노력과 수행을 하지 않는 동기적 결핍을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된 실패경험으로 인해 실패에 대한 내성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학습무기력은 학습 결핍과 학업 성취도 저하를 수반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 초조, 우울감, 좌절감, 스트레스 심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동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명진, 봉미미, 2013).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입시 위주의 경쟁적 학습 환경과 그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압박감 등에 의해 학습된 무기력을 더욱 높게 인지한다(고재량, 변상해,

2014). 청소년들이 대부분 시간을 소비하는 환경은 가정, 학교, 학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머물며 자연스럽게 학습된 무기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는 학교이다. 학교에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회화 교육을 위해 청소년에게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행사하여 청소년을 통제하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기력을 더욱 많이 학습하게 된다(김은미, 김민, 2017).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위험이 크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무기력을 학습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은미, 김민, 2017; 우연경, 노연경, 2021; 이명진, 봉미미, 2013; 정은, 신민정, 2014). 체육 교과에서도 여학생들의 체육 학습무기력은 남학생들의 체육 학습무기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임영무, 2014; Walling & Martinek, 1995; Martinek & Griffin, 1994). 여학생들이 학령기 체육활동에서 경험한 학습무기력은 평생체육으로 이어지는 체육활동의 임계기에 원활하지 않은 신체적-정서적 발달로 귀결되기 때문에, 향후 여성체육 활동의 약화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한태룡, 2010).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쉽게 도달하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혼성 체육 수업에서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 무기력의 원인에 관한 학술적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박수현, 김성훈, 이안수(2012)는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요인을 내적 요인(운동기능, 성격, 과거 운동경험, 체육교과 인식)과 외적 요인(수업환경, 수업운영방식, 동료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 탐색하였으나 여중생에 특화된 무기력 요인은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김미영과 임영무(2014)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녀공학 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생들의 체육활동에 관한 부정적인 경험이 여자 중학교 여중생들보다 많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체육활동 비(非)참여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는 중학교 시기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Caneron & Humbert, 2020; Doolittle, 2016; Dumith, Gigante, Domingues, & Kohn, 2011).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중생의 학습무기력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혼성체육 수업에서 실제로 학습무기력을 경험한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게 된 학습무기력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A중학교(남녀 공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8명으로, 유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선정되었다. A중학교 재직 중이면서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체육교사에게 연구 목적에 대한 사전 설명을 명확히 한 후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여중생들을 소개받았다. A중학교 체육 교사의 지도경험을 바탕

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무기력을 경험한 여중생을 추천받았다. 체육 교사에게 의뢰한 추천 기준은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재학 중에 체육수업에서의 실패 경험으로 최소 2학기 이상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학습 의지의 결여로 인해 낮은 체육 성적을 받은 경험을 소지한 여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 교사의 도움을 받아 추천된 여중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8명의 여중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에 대하여 연구 수행 전 연구 참여자의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들의 소속 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으로부터 연구 프로토콜, 연구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 그대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은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인 여중생들이 이동하지 않고도 쉽게 대면이 가능한 A중학교 교내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최대한 솔직하고 꾸밈없지만 구체적인 응답을 요청하였다. 점심 시간 및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면담 진행에 있어 시간적인 제약을 최소화하였으며, 8명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1인당 2-3회의 개별 면담을 회당 약 20-30분 동안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여중생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시간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담 횟수를 늘리거나 후속 질문을 추가하였다. 후속 질문은 여중생들이 면담 시 미처 응답하지 못했거나 누락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여 연구자에게 편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각 면담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 면담 내용은 체육수업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느낀 감정, 과거 경험한 체육수업의 실패감 또는 좌절감, 체육 수업에서 학습 흥미 또는 동기가 결여되었을 때의 감정과 그 원인, 학습무기력을 느꼈을 때의 감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층 면담 시 정확한 내용 추출을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녹취 기능을 면담자인 학생의 동의 하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여중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실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혼성체육수업 현장에 참관하여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함께 학생들의 참여 형태를 관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관찰 일정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의 대면 수업 일정에 맞추어 1인당 최소 3회 이상의 집중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때 관찰의 형태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그 자체로 관찰하기 위한 비(非)참여 관찰을 진행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꾸밈없는 체육수업 참여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참여 관찰로 실시하였으며, 메모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및 영상 촬영으로 연구자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귀납적 분석(inductive categorical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Creswell & Poth, 2017).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괄적인 주제를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참여자 및 일자별 기록은 전산상에 전사하여 내용을 빠짐없이 분석하였으며, 이 때 참여자들에 의해 빈출되는 단어나 관련성을 나타내는 주제를 통해 여학생의 학습무기력 원인들을 발견하였다. 발견된 패턴에서 범주화되는 내용들은 상·하위 범주로 나누어져 검토되었으며, 각 범주들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확인하여 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다. 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면담이 필요하거나 파생되는 질의가 생김에 따라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한 후속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측정법(triangulation)과 동료협의회(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 하나의 연구 과제에 대해 다양한 원 자료(raw data)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인 질적 연구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삼각측정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다양한 관점과 상황, 시공간을 포괄하여 검토하기 때문에 연구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시 진행한 녹취를 통해 전사를 진행하고, 체육활동 참여 사진과 현장노트 등을 활용하여 삼각측정법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료협의를 활용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으로 오류를 범하거나 독단적인 시선으로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연구 진행과정 중 수시로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체육교육 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상반되거나 상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혼성 체육 수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중생들의 학습무기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각 원인이 상호 유기적인 양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은미와 김민(2017)은 다양한 원인의 학습 무기력을 한가지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도 혼성 체육 수업에서 나타난 여중생의 학습무기력의 원인은 여중생의 개인적 원인, 체육수업의 교수자로부터 영향을 받는 교사 원인, 함께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로 받는 영향인 또래학생의 원인, 날씨나 온도 및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환경 원인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 여중생의 개인적 원인

여중생의 학습무기력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에는 여중생 자신의 개인적 원인(낮은 체력 수준으로 인한 위축감, 내적 갈등의 연속)으로 확인되었다.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 (2016)

의 메타연구에서는 학습무기력의 다양한 원인 중에 개인적 요인이 가정 또는 학교 요인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1) 낮은 체력 수준으로 인한 위축감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체력수준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체육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창섭 등(2013)의 연구에서도 조사된 것처럼 여고생의 신체활동 저해 요인 중의 하나로 여고생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체력 문제가 거론되었다. 다른 선행연구들(우연경, 노연경, 2021; McClure, 2011)에서도 여학생들은 좋지 못한 학습 결과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탓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무기력을 경험한 여중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낮은 체력수준은 체육수업 참여의 부담을 가중시켜 참여를 위축시키며, 이는 그들이 다양한 체육수업에 참여하거나 도전할 수 없도록 작동하는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팝스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중학교)1-2학년 때 이제 팝스를 하는데, 오래달리기 하는 거는 약간 제 한계를 찍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 폐활량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제가 연습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그런 구역에 있는 체육이나 활동을 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잘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데 근데 나는 이걸 만점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약간 좀 오래달리거나 이런 거는 아예 포기를 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유연성 측정 같은 거는 제가 진짜 집에서 해봤는데 안 닿으니까 그냥 학교에 와서도 애들 다 막 쪽쪽 스트레칭하고 있는데도 그 때는 ‘아, 난 안된다.’ 생각하면서 막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충했어요. (연구 참여자 ①)

특히 PAPS측정을 통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자신의 체력 수준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안 따라주는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져 체육수업 참여를 포기하고, 또래들과의 가시적인 비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다른 수업에서의 활동에서 낙오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수업의 특성상 개방적인 환경에서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창피함,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체육수업 시간에 행해지는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결국에는 체육수업 학습무기력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수현 등(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운동기능 요인과의 일맥상통한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운동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학습무기력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ing & Martinek, 1995). 특히 학습무기력과 낮은 운동수행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Martinek & Griffin, 1994), 학습무기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습무기력의 원인으로 과제의 난이도와 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자신의 낮은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갑렬, 2003; Martinek & Griffin, 1994; Walling & Martinek, 1995).

2) 내적 갈등의 연속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중생들은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만큼 감수성이 예민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관심에 민감하여 체육수업 참여 중에도 자유롭지 못하며, 체육활동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팀 스포츠 활동을 진행할 때 ‘나 때문에’ 혹시 패배하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활동 시 나타나는 본인의 몸짓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상황에서 또래와의 실력 차이로 인해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 등의 체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며 타인과의 비교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감 등의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체육수업 참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달리거나 길게 오래 달리는 거는 이게 제가 딱 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이랑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중략) 뭔가 이제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개인 평가인데.. 잘하는 것이나 연습한 것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할 때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거요. (연구 참여자 ②)

이처럼 여중생들은 체육수업의 특성상 개방적인 환경에서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창피함,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이는 체육수업 시간에 행해지는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학습무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중생의 학습무기력 원인은 선행연구(이창섭 등, 2013; Walling & Martinek, 1995)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학생들이 자신을 타인과 지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이 심화되고 결국 체육활동의 참여를 저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비단 여중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활동 기피 요인(양갑렬, 2003)과 여고생의 체육활동 저해 요인(Fisette, 2013; Hills, 2007)으로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학교급에 관계없이 여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학습무기력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 또래 학생 원인

여중생의 학습무기력을 유발하는 두 번째 원인은 또래 학생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 또래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집단 문화와 비난과 야유에 대한 부담감, 또래 남학생들의 참여 독점 행태로 확인되었다. 하문선(2012)은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관계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학습무기력의 학습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1) 또래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집단 문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체육수업 참여에 관여되는 꾸준한 방해 원인은 의욕적이지 않은 친구들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래의 시선이나 말,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 여중생의 특성상 본인

주변에 체육수업 활동에 의욕적이지 않고, 오히려 체육수업 참여에 반감을 갖고 있는 또래 여중생들이 있을 경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 체육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평소에도 체육수업 참여에 적극적인 연구 참여자 ⑤의 경우 체육수업에 혼자만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체육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종목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도 있었으나 의욕적이지 않은 주변 또래들로 인해 참여 의욕 저하를 느끼고 있었다.

저 혼자 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애들도 가끔 참여하긴 하는데 배구 할 때도 좀 친구들이 가만히 있기는 해요. (중략) 구기대회 할 때, 리그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은 되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애들은 아예 기피를 하니까 참여를 못 하는 거죠. (연구 참여자 ⑤)

연구 참여자 ⑤의 체육수업 참여를 과거와 현재까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친구들의 시선’이었다.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면, 본인도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없이 혼자만 참여하게 되면, 스스로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친구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여 지속적으로 수업 참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④의 경우에도 ‘친구들의 시선과 언행’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여중생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면 본인도 열심히 하게 된다고 느꼈고, 친구들이 “하기 싫다.”, “수업하지 말고 앉아 있자.”라고 권유하게 되는 순간, 영향을 받아 본인도 수업 참여의 의지가 꺾였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여중생들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순간 또래의 시선이 갑자기 집중되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부담감으로 인해 체육수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의욕이 없어져서 혼자 뛰었거든요. 친구들이 주변에서 하기 싫다고 했을 때 같이 영향을 받아서 ‘아 나도 약간 하기 싫은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중략) 친구들끼리 열심히 하는 애, 안 하는 애로 나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업 참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수업을 참여하고 하면 시선이 집중되고 애들이 그걸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서요. 확실히 여자애들 사이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애, 안 하는 애로 나뉘는데 제가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주목 받게 되고요. 참여를 안 하던 애들과 앉아 있는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가끔 수업하지 말고 앉아 있자고 얘기 하는 경우도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참여할 때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었어요. 운동할 때 같이 대화할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든 것도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④).

이처럼 본 연구의 여중생들은 스스로 열심히 참여하고자 변화하려고 해도 체육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단아’로 여겨지는 본인의 모습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체육수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적인 수업 참여를 확인하기 위한 비(非)참여 관찰을 실시하는 동안 그들과 같은 학급의 다른 여중생들의 모습 또한 자연스럽게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여중생들은 대체로 무리 지어 다니며 활동 중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이던 학생마저도 어느 순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또래들 사이에 합류하여 자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각자 ‘체육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애들’과, ‘체육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로 구분 짓는 양극화된 모습을 띠고 있었다.

2) 또래 학생들의 비난과 야유

본 연구에 참여한 여중생들은 자발적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전히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또래의 야유와 비난’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체육수업 참여 시 의지를 갖고 수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마음먹은 만큼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운동수행 시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런데 연구참여자들의 팀 활동 또는 팀 평가에서의 실수는 또래로부터의 즉각적인 비난과 야유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 와 같은 비난과 야유는 이들의 학습무기력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건 약간 팀 활동을 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할 때는 솔직히 뭔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1학년 때 체육수업 시간에 축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덩치가 작은 편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땀에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친구가 “거리적거리니까 비켜!”라고 하니, 아 진짜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①)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합반으로 구성된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때때로 체육수업에서 존재하는 남학생들의 야유나 비난은 여중생들을 위축하게 만들며 참여 의지를 반감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솔직히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눈치를 봐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실수하면 남자애들이 뭐라고 하면 여자애들도 그게 좀 그래서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연구 참여자 ⑦)

김윤희(2003)는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의 경우 실수를 통해 받게 되는 비난, 야유 등에 대해 걱정과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는 참여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반복된 실패를 경험함에 따라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엄우섭과 김동식(2015)도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기피 요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체육수업의 특성 상 여학생들의 활동 수행 결과가 즉각적으로 타인에게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또래 친구의 비난과 야유가 두려움으로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또래 남학생들의 참여 독점 형태

중학교 시기에는 남중생과 여중생의 경우 신체적·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본 연구의 비참여관찰을 통해 체육수업 참여의 경우 어느 교과들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비참여관찰을 실행하는 동안, 대체로 남중생들은 실력 여하를 떠나서 체육수업 참여 의지를 갖고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여중

생들은 바닥에 앉아 있거나 서로 잡담을 나누는 등의 참여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인 여중생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체육수업의 참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체육수업 시간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남학생들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여 불편했던 경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은 제외하고 본인들끼리만 활동에 참여하여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 함께 구기 활동을 할 때 남학생이 던지는 강한 공이 무서웠던 경험, 본인의 체육수업 참여 시 이성(異性) 친구의 시선이 신경 쓰여 몰입하지 못했던 경험, 참여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학생이 높아 자연스럽게 남학생 위주의 수업으로 전개되었던 경험 등은 여중생들이 남학생들과 비교할 때 체육수업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선행연구들(남상우, 2009; 박수현 등, 2013; Fagrell, Larsson, & Redelius, 2012; Fiset, 2013)은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문화는 권력의 문제와 관련됨을 주장한다. 이 연구들에서는 운동장에서 권력을 소유한 자는 남학생이고, 반대로 여학생들은 권력의 주체들에게 억압받는 존재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체육수업에서 여중생들은 남학생들의 독점적인 행동으로 인해 참여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onstantinou, Manson, & Silverman, 2009; Fiset, 2013; Walseth, Engebretsen, & Elvebakk, 2018).

주로 남자애들만? 남자애들 중에서도 운동 잘하는 남자애들끼리만 공을 주고받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때 여자애들은 다 “아 재네 뭐하나.” 하면서 ‘우리는 그냥 병풍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연구 참여자 ⑥)

일단 체육 할 때 쓰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거를 좀 남자애들이랑 정당하게 반반씩 나눠서 쓰는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남자애들이 훨씬 많이 쓰고 있어서...(연구 참여자 ⑧)

공간이 조금 좁다고 해야 하나? 뭔가 남자애들이 (주로)쓰고 하면 우리는 못쓰고 있어서 다른 공간을 써야 하고... (중략) 같이 쓸 수는 있는데, 같이 쓰면 너무 불편해서요. 공을 찬다고 하면 너무 세게 차서 약간 무서워요.(연구 참여자 ⑦)

이처럼 또래집단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여중생들은 체육수업 참여에도 여지없이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Walseth, et al., 2018). 이들은 체육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또래 친구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참여 의지가 반감되거나,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또래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체육활동 참여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며, 실수로 인한 야유나 비난이 두려우면서 동시에 성차에 의해 소외감을 경험하는 등의 복잡한 감정으로 학습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3. 체육 교사 원인

여중생의 학습무기력을 유발하는 세 번째 원인은 체육 교사 원인이다. 체육 교사는 체육수업의 맥락 속에서 학생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핵심적인 존재이다. 실제로 교사의 성격과 인성 등

이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양갑렬, 2003; Fisetete, 2013)에서도 그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1) 체육 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여중생들의 체육 교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의식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체육 교사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세밀히 고려하지 않고 체육수업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너무 빠르게 굴러가나..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 사이에 신체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고려를 안 해 준다가나, (중략) 아무래도 여자 친구들이 참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아예 따로 해 가지고 너네끼리 놀아 라? 하는 그런 분위기요(연구 참여자 ③)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체육 교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체육수업 시간에도 존재한다. 체육 교과와 특성상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교사의 반응 역시 즉각적이고 생동감있게 전달되기 때문에 여중생들은 체육교사의 반응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거나 체육교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체육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안 되니까 약간 뭔가 그냥 포기하실 때? “그래 너는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냥 그렇게 해~”라고 하시니까 ‘어?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뭔가 잘 안 해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①)

평소 체육수업 학습무기력을 경험했던 연구 참여자 ①은 당시에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보자는 생각을 했지만 체육 교사가 본인의 수행에 대해 칭찬은 고사하고 오히려 포기하거나 방치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불가능해도 시도해 보고자 했던 마음은 바로 속상한 감정으로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감정의 변화는 결국 체육 교사와 체육교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학습무기력으로 발전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여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방치하는 경우 체육수업의 ‘구경꾼’ 또는 ‘들러리’로 전락한 여중생이 체육수업에 느끼는 실망감은 배가되며, 체육 교사의 행동을 차별적으로 받아들여 교사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육수업 참여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현상은 양갑렬(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교사의 성차별적인 언행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setete (2013)의 연구에서도 여고생들이 남고생들과 평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체육교사의 행동에 대해 불만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Constantinou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여중생에 대한 체육교사의 동일한 기대감이 여중생들의 긍정적인 체육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체육수업에서의 여중생의 학습무기력은 체육교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강압적인 체육 수업 분위기

본 연구의 여중생들은 체육교사의 차별적인 언행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체육 수업 분위기로 인해서도 학습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체육수업에서 학습무기력을 경험하며 수업 자체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수업에는 착실히 참여했던 연구참여자 ②는 수업 참여 중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 잠시 휴식을 요청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는 등 교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체육수업 학습무기력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예전에 체육 선생님이 (활동을)하라고 강요를 하시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해주신다든지 잠시 휴식 좀 취하게 해주신다든지 한다는 하는 것에 대해 잘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연구 참여자 ②)

이와 같은 체육교사의 강압적인 태도는 여중생들로 하여금 체육수업이 억압적이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체육교사의 강요에 의한 수업 참여는 여중생들의 지속적인 참여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솔직히 지금 선생님이 약간 하려면 어떻게든 지원해주시고, 안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주셔서 '안 해도 돼'라고 하시니까 뭔가 그게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게 약간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별로였던 선생님은 아픈데도 꼭 뭔가를 하라고 했던 선생님? 뭔가 진짜 기준이 너무 뻥센 선생님? 진짜 그런 선생님이면은 일단은 진짜 '올해 체육은 그냥 끝났구나.' 이런 생각? (연구 참여자 ③)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에서 학습무기력을 경험했던 여중생들의 면담을 통해 흥미롭지 못한 종목이나 딱딱한 분위기에서 오는 학습무기력 현상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 체육 현장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달리기', '체조' 등의 종목은 여중생들에게 체력적 부담과 함께 재미없는 체육수업으로 각인됨으로써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루함을 느끼게 되며 체육활동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체육수업에서의 학생 정렬이나 '차려', '열중 쉬어', '좌향좌, 우향우' 등의 구령이 체육교사의 이미지를 군인으로 각인시키고 체육수업 참여형식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배구를 배우든지 플라잉디스크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요. 막 '차려', '옆으로 가' 이런 것을 초반에 배우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요. 또 체육수업이 싫어져요. (연구 참여자 ⑦)

3) 체육교사의 일관성이 없는 판정

체육수업에서는 시시각각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판정 시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체육수업의 특성상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할 수 있으나, 때때로 체육 교사의 판정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역차별적인 시각에 의해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중생들에게 체육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 ③에 따르면, 과거 체육수업 시간에 팀별로 게임 활동을 진행했을 때 팀

간의 실력 차이로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체육 교사가 의도적으로 팀 간의 점수를 맞추기 위하여 ‘아웃’이 아닌 경우에도 아웃을 선언하거나,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동일 상황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정을 내린 결과 그 당시 여중생들의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편애하시는 거요. 예를 들면 아웃이 아닌데 아웃이라고 한다든가,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판정하는 것이요. 언젠는 아웃이고 언젠는 아니고. (연구 참여자 ③)

이 면담내용은 체육수업 중 ‘언밸런스(unbalanced)’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체육 교사의 의식적인 노력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팀 대 팀 활동이라는 일종의 경쟁 상황에서 일관되지 못한 체육 교사의 판정은 여중생으로 하여금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일부 학생들에 대한 편애라는 감정까지 느끼게 만들었다. 이처럼 순간적인 체육 교사의 선택적 판정이 여중생들로 하여금 체육교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체육 교사를 넘어서 체육 수업에 불만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여중생들은 더욱 민감하게 체육 교사의 시선이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일부 여중생들의 경우 학습무기력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 원인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의 학습무기력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환경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여중생들의 이야기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영과 임영무(2014)에 따르면, 날씨 요인, 시설·용구 요인은 여중생들의 체육수업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등(2013)도 여고생들의 체육참여를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날씨와 시설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1) 온도 차이로 인한 참여 의욕 저하

체육수업이 운동장, 체육관, 실기실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면서 날씨나 기온의 변화에 따라 여중생들의 수업 참여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날씨가 너무 추우면 추운 대로 움직이기 싫거나 게을러진다고 하였으며, 너무 더우면 움직일 때 땀이 나서 찝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체육수업 참여를 열심히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날씨나 온도? 날이 너무 춥다거나 더우면 참여하기 힘들고요. 다른 친구들도 체육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움직이면 땀나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고 그러면 잘 참여 안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③)

체육을 한다면은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뭔가 귀찮아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요. (중략) 날도 춥고 그러니까..움직이면 더 추워서요. (연구참여자 ⑤)

날씨에 따라서 너무 추우면 좀 게을러지는 때가 있어서요(연구 참여자 ①)

실제로 별도의 이동 없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타 교과와 달리 체육 교과는 일반 교실이 아닌 다양한 수업 장소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수업의 참여 양상은 날씨나 기온 등의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여중생들은 땀 분비로 인한 불편함, 영하의 날씨에 따른 움츠림과 게으름에 예민하며 그들의 행동 양상은 결국 체육수업의 학습무기력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는 체육 수업 장소로 ‘이동’한다는 점이 모순적으로 여중생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일종의 수업 참여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참여 의욕을 저하시키는 보다는 직접적인 학습무기력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기피 요인을 연구한 양갑렬(200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낙후된 체육학습 공간

체육수업에서의 학습무기력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앞에서 기술되었던 학습무기력의 원인으로 여중생의 개인적 원인, 체육교사의 원인, 또래학생의 원인을 비롯하여 수업 용기구, 활동 공간(시설) 등의 체육수업 자원도 체육 학습무기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좁은 체육수업 공간은 여중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공간으로 인식됨으로써 여학생들에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감정이 들게 하고, 이들의 수업 참여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갑렬, 2003; 엄우섭 등, 2015).

연구 참여자 ④와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체육 교과실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퀴퀴한 냄새가 나는 학습공간이 여중생들의 체육수업 참여 의지를 꺾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비참여관찰 동안에도 연구자는 대부분의 수업시간 동안 두꺼운 무릎담요를 허리에 두르고 체조 매트 위에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긴 패딩 점퍼를 입고 귀찮은 듯 우두커니 서 있는 여중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여중생들은 체육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도 낙후된 용기구들(예: 굴러가지 않는 공, 군데군데 찢어져 있는 매트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체육수업에서의 참여 의지를 전혀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할 때 공이나 기구 같은 것들요. 이제 축구를 하는데 막 잘 안 굴러가는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조금 하기 싫어지죠. 또 체육 교과실이 냄새가 나가지고 싫어서 체육수업 하는 걸 별로 안 좋아 했어요(연구 참여자 ④).

이 결과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피 요인을 탐색한 양갑렬(200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청결하지 않는 교구나 참여의 두려움을 제공하는 교구 등은 여학생들의 참여 저해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면서 동시에 학습무기력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양갑렬, 2003; 엄우섭 등, 2015).

IV. 요약 및 제언

1. 요약

우리나라 중학교 혼성체육수업에서 여학생의 학습 무기력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습 무기력을 경험한 여중생의 생생한 목소리(lived voices)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혼성체육수업에서 학습 무기력을 경험한 여중생의 이야기를 통해 학습무기력의 원인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 중학교 혼성체육수업에서 발생하는 여학생의 학습무기력은 4가지 원인(개인, 또래학생, 교사, 환경)으로 탐색되었다.

첫째, 여중생의 첫 번째 학습무기력의 원인은 여학생 개인 원인으로, 낮은 체력수준으로 인한 위축감과 내적 갈등의 연속이 세부적인 여학생의 개인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여중생의 두 번째 학습무기력의 원인은 또래학생의 원인으로, 또래 여학생들의 소극적인 집단 문화, 또래 여학생들의 비난과 야유, 또래 남학생들의 참여 독점 행태가 세부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여중생의 세 번째 학습무기력의 원인은 체육교사의 원인으로, 체육교사의 차별적인 언행, 강압적인 체육수업 분위기, 체육교사의 일관성이 없는 판정이 세부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끝으로, 여중생의 네 번째 학습무기력의 원인은 환경 원인으로, 온도 차이로 인한 참여 의욕 저하, 낙후된 체육학습 공간이 세부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성체육수업에서 여고생의 학습무기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 1개교에 재학 중인 여중생 8명의 사례를 통해서 여중생의 학습무기력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예: 고학년 여자 초등생, 여고생 등)과 함께, 다양한 지역소재 여중생들의 학습무기력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학생뿐만 아니라 체육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학생의 학습무기력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성차를 막론하고 체육수업 학습무기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학술적 관심으로 남학생의 체육수업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한 보다 심층적인 남학생의 체육수업 학습무기력에 대한 이해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재량, 변상해(2014).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및 학습된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1(7), 27-54.
- 교육부(2020). 학교체육활성화추진 기본계획. 교육부.
- 김경숙, 김종호, 안혜임(2016). 여학생 체육활동 현황 및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4, 603-614.
- 김미영, 임영무(2014). 중학교 여학생의 체육수업 기피 요인 및 기피 유형 분석. 학교보건체육연구 소 논문집, 20(2), 1-12.
- 김성진 (2014).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스포츠와 법, 17(4), 59-77.
- 김원정, 홍애령(2017). 국내 여학생 신체활동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체육 활성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1(3), 73-93.
- 김윤희(2003).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의 체육수업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1), 57-76.
- 김은미, 김민(2017). 두 여자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의 발생원인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4(10), 139-172.
- 김택천(2016). 여자고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체육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99-110.
- 남상우(2009). 푸코의 권력이론과 스포츠: 규율권력과 생체권력, 통치성의 이해.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2(3), 65-89.
- 박수현, 김성훈, 이안수(2012).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된 무기력과 귀인성향 관계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6(1), 99-123.
- 신기명(1992). 학습된 무기력. 서울: 배영사.
- 양갑렬(2003).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체육수업 인식 분석: 기피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1), 73-92.
- 엄우섭, 김동식(2015). 초등학교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기피 요인 차이 분석. 한국초등교육, 26(1), 255-277.
- 엄우섭, 한은상, 이정택, 차민철(2015). 초등학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4), 57-72.
- 우연경, 노언경(2021).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잠재프로파일: 영향 요인 탐색 및 집단별 특성 차이. 한국교육학연구, 27(1), 281-304.
- 이강순(2015). FGI를 통한 초등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경향과 의욕 증진 방안.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9(4), 95-105.
- 이명진, 봉미미(2013). 청소년기의 학습된 무기력. 교육학연구, 51(1), 77-105.
-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2013). 고등학교 여학생의 신체활동 저해 요인의 종합적 이해.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7(4), 57-76.

- 이창섭, 황성하, 여정권(2011).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내재화와 체육수업소외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4), 75-99.
- 정문주, 양현숙, 채은영, 김선희(2016).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5), 31-65.
- 정은, 신민정(2014). 무기력의 심리에 관한 신경과학적 접근. *교육의 이론과 실천*, 9(3), 115-145.
- 진연경, 이현석(2016).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정책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4), 89-103.
- 하문선(2012). 자율성, 관계성 및 우울을 매개로 한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태룡(2010).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황의룡, 황철상(2013).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2(4), 283-291.
- 홍연중, 이옥선(2017). 초등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학생 친화적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 탐색. *체육과학연구*, 28(1), 167-184.
- Cameron, N., & Humber, L. (2020). Strong girls in physical education: opportunities of social justice education. *Sport, Education, and Society*, 25(3), 249-260.
- Constantinou, P., Manson, M., & Silverman, S. (2009). Female students' perceptions about gender-role stereotypes and their influence on attitude toward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or*, 66(2), 85-96.
- Creswell, J., & Poth, C.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shing.
- Doolittle, S. (2016). Engaging middle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program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87(6), 29-34.
- Dumith, S., Gigante, D., & Domingues, M., & Kohn, H. (2011). Physical activity change during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and a pooled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0(3), 685-698.
- Fagrell, B., Larsson, H., & Redelius, K. (2012). The game within the game: Girls' underperforming position in physical education. *Gender and Education*, 24(1), 101-118.
- Fisette,, J. (2013). Are you listening?: Adolescent girls voice how they negotiate self-identified barriers to their success and survival in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8, 184-203.
- Hills, L. (2007). Friendship, physicality, and physical education: An exploration of the social and embodied dynamics of girls' physical education experiences.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2(3), 335-354.
- Martinek, T., & Griffin, H. (1994). Learned helplessness in physical education: A developmental study of causal attributions and task persistence.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3, 108-122.

- McCulre, J., Meyer, L., Garishch, J., Fischer, R., Weir, K., & Walkey, F. (2011). Students' attributions for their best and worst marks: Do they relate to achieve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6*, 71-81.
- Walling, M., & Martinek, T. (1995). Learned helplessness: A case study of a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4*, 454-466.
- Walseth, K., Engebretsen, B., & Elvebakk, L. (2018). Meaningful experiences in PE for all students: An activist research approach.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23*(3), 235-249.

Abstract

Exploring the Causes of Middle School Girls with learned Helplessness at Coeducational Physical Education Classes

Kwon, JaeHyun · You, JeongAe(Chung-Ang University)

To date, various governmental policies and academic supports have been given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of girls in Korea. But there still exist some girls who are not actively participating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reason is that there is lack of studies that inquire why the girls are not actively participating at P.E. classes and they continuously feel learned helpless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various causes of girls' learned helplessness throughout lived stories of girls who before experienced learned helplessness in middle school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8 girls at grade 3 in 'A' middle school are purposely selected based on the P.E. teachers' references. Data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field observations a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inductive categorical analysis. As the main result in this study, four causes of girls' learned helplessness were emerged such as personal cause, peer student' cause, P.E. teachers' cause, and environmental cause. The personal cause is divided into two sub-themes such as shrinking feeling due to lowed fitness level and the continuity of internal conflicts. The peer students' cause is made of three sub-themes such as passive group culture, girls' criticism and jeer, and monopolistic action of peer boys. The P.E. teachers' cause is consisted of three sub-themes such as discriminated words and actions, strict climate of P.E. class, inconsistent judgment. Finally, the environmental cause is consisted of three sub-themes such as lack of participation motivation due to temperature difference and old learning space at P.E. class.

[Keywords] Middle Female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Coeducational Physical Education Classes, Peer Students